

## 8. 암송아지 육성기 사료 급여 기준 및 사양관리 요점은?

암송아지의 육성기는 성장발육 특성으로 볼 때 생후 3~4개월령 전·후의 이유부터 12~13개월령 때의 번식기까지를 말한다. 이 시기는 골격, 근육 및 생식기의 발달이 왕성하고, 특히 소의 일생에서 소화기관이나 번식기관이 최대로 성장하는 기간일 뿐 아니라, 급여하는 사료의 종류, 사료의 양과 질에 의하여 쉽게 성장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된 기초 체형, 포유능력 및 번식특성이 일생 동안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간의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

따라서 암송아지가 번식우로서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급여하여 적정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. 육성기는 골격 및 소화기관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 위주로 급여하되, 단백질, 광물질 및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.

육성우의 1일 영양소 요구량은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 따라 다르고, 성장단계에 따라 증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의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 대한 평균의 개념으로 영양소 요구량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. 따라서 한우 암송아지에 대한 구간별 체중과 일당증체량의 목표치를 결정한 후 한우 사양표준(2007)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량에서 0.4 또는 0.6kg 증체를 기준으로 하여 1일 영양소 요구량을 산출하면 되는데, 조사료를 벗짚으로 할 경우에 농후사료는 체중 대비 1.4%가 적절하다.

그러나 실제로 번식우를 사육하는 단계에서는 기상여건 또는 사료의 품질 등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량보다 10~20% 증량하여 사료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.

(한우연구소 / 033-330-0693)